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완전복음, 완전사랑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전서- 잠언 25:21-22, 고린도전서 13:13

정운돈 목사님

- * 잠25:21-22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편 숲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 * 고전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신중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회복지 장애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신학교에 갔다. 어느 날 장애인 시설 현장을 보면서 단지 먹고 입는 게 다가 아니라 신앙을 심어 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중증장애인 시설을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셨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니 항상 빛이 있었고, 그럼에도 항상 행복하고 여유롭게 사셨다. 저는 '내가 목사가 되면 뭘해, 부모님이 빛이면 무슨 소용이야. 부모님 빛 다 갚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시설에 들어갔다. 저는 20대와 30대를 고아와 부모님을 위해서 보냈다. 하지만 저는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하라고 수십 군데 해외로 보내신다. 하나님은 복음을 알도록 하시고 세계 문을 여시고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셨다. 시작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효도다. 성공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No' 하지 마셔라. 하나님과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만 가져도 예뻐 보인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저는 형제들과 싸운 적이 없다.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키우면 형제가 우애로운 것은 정상이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의 효도다. 형제가 잘되면 좋은 건데 그걸 시기, 질투한다.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 쪼들려 성격과 다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란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다. 복음의 제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모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은혜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사랑이다. 이 은혜로 결론내고 끝내시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재산 신고한 걸 보면 몇 십 억씩 있는 사람들도 있다. 저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일 안 하고 놀러다니겠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신다. 많은 사람들은 먹기 위해, 빚 갚기 위해 산다. 월세 내고 할부 값을 내기 위해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단지 먹기 위해 살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라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몇 백 조가 있는

데 왜 일을 할까? 심지어 은퇴도 안 하고 휴기도 없다. 사람은 단지 먹기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걱정하면서 겨우 직장생활하면 거의 돼지와 비슷하다. 제가 보니까 돼지들은 밥 열심히 먹고 자기가 썩 배설물에 좋다고 몽겐다. 먹고 싸고 살찌는 게 전부다. 우리의 상태가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고 힘들고 영적 문제 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이제 겨우 직장생활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가장 가치있는 일을 위해 살기 바란다. 그러면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집착하며 나름대로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 무엇인가 열심히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치있는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것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주변에 성공한 것 같지만 이유 없이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237나라를 살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행해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무엇인가 염려하고 갈등한다. 확신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몇 백 억, 몇 천 억을 가지고 있지만 지옥 같은 삶과 공허함을 가진 성공자에게 답을 줄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내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가. 예배부터 회복해라. 그리스도와 예배로 결론내시기 바란다.

현장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는 가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과학도 이렇게 발전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를 생각한다. 오늘 본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국제 항구도시였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철학 도시였던 아테네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지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제가 보니까 공부를 해보면 꼭 모든 분야의 결론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로 수렴하더라. 21세기여도 모든 철학과 지식과 인문사회학이 아테네 학문의 일부분이다. 고린도는 그런 아테네의 옆 동네였다. 바울이 아테네(아텐)에서 유일하게 진도에 실패했는데, 십자가의 도에 더해 철학적으로 진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아텐에서 깨달았다. 지식과 말이나 언어가 아닌 십자가의 도, 성경만 가르쳐야겠다고 깨달았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 십자가만 전해야겠다고 깨달았다. 저희 전도목사님께서 항상 같은 구원의 길을 하시는데도 매번 은혜롭게 하신다. 30년 동안 뽀박받으면서도 신앙생활하시며 스스로에게 구원의 길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하나 새롭게 그리기 때문이다.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보니 풍성하게 누리진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고 묵상하며 그려보시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어떤 박사나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진도와 선교를 위해 살라.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나. 여러분이 아들, 딸과 1억, 10억, 100억을 안 바꾸듯이 진도가 그렇다. 우주만물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한 생명을 살리고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한 마디로 우주를 만들고 없애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자부심과 교회의 소중함을 가져야하는 것은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난다. 제가 만나보니까 멀쩡하고 예쁜 친구들이 계속 마약을 한다. 오직 복음,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또 고린도는 종교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의 대형 신전이 있었다.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다산의 여신으로 경배되고 있었다. 신전에는 약 천 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창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고린도교회에도 이런 타락된 문화가 가득했다. 이 풍요롭고 교만하고 타락한 도시에 만들어진 고린도교회가 그럼에도 가장 부흥했던 것은 사명자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과 한 팀이 되니까 고린도 지역 전체를 살렸다.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유대인과 유럽교회, 미국을 살릴 수 없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내시기 바란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복음 하나로 행복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 결론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 안에서 받아야 진짜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매일 싸우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로 결론내니까 그게 아무 상관 없었다. 교회가 1층, 2층으로 나누어져서 매주 꼭 파출소에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권사님은 기도만 하신다. 권사님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영등포에 박성철 장로

님이라고 계신데 몇 백 명의 신학생 학비를 다 내셨다. 교회에 절반이 그 장로님께서 전도하신 분들이다. 이렇듯 장로님 한 분이면 교회가 살아난다. 저는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열두 제자와 이십사 장로와 70인과 120문도, 500형제를 위해 기도한다. 3천 제자와 5천 제자 응답을 받을 줄 믿는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 생명 걸 한 사람이 나오면 현장과 가문이 살아난다. 저희 가족 형제는 싸우지 않았는데, 제가 다 양보했기 때문이다. 저는 양보했지만 하나님께 제게 천만 배 응답하실 것이다. 선으로 악을 갚아라. 욕심부리지 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지만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다. 고린도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고린도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알아보겠다.

(1) 고린도교회에는 편당을 나누어 분쟁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나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누구는 설교를 잘 하고 누구는 그리스도가 끝이라면서 싸운다. 이걸 참된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누구를 칭찬하면 뒤에 가서 고자질한다. 인간이 다 그렇다. 교회도 그렇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배가 아프다. 복음이 위대하니까 흑암이 더 틈을 탄다. 여러분이 진짜 복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면 복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로 낮은지 모를 정도로 낮아진다. 우리 영적 상태 때문에 복을 잃어선 안 된다. 그릇을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넓혀서라.

(2) 바울은 당시 철학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2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고 했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혜이고 영원한 축복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이유와 답을 모르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데 별로 안 행복해 보이고 오히려 불안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답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를 안 한 적이 없다. 왜 그럴까? 제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학기가 되면 공부 제일 잘하는 1등과 짝을 했다. 그리고 인정해 주고 복음을 전했다. 다 저를 좋아했다.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확신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 저는 공부를 잘 못 했지만 친구는 항상 공부를 잘 했다. 그러나 관계없다.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을 전도하는데 교수님이어도 다 영적으로는 무식하셨다.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자신의 전문분야와 기능만 전할 뿐이다. 영적 문제가 너무 많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인생의 답과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알려줘야겠다. 우리에게 천국열쇠가 있다. 여러분이 현장의 울무, 틀, 함정, 재앙, 착각을 풀어줄 수 있다.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풀어줘라.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지만 할 뿐이다. 왜 전도가 안 될까?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세상이 부럽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무언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한두 명 전도하지만 후대들은 아니다. 후대가 복음으로 결론내면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린다. 여러 나라와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제가 고아원 친구 여럿을 대학에 보냈는데 여러분을 보면 고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최고의 꿈을 꾸는 후대들이 되셔라.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께 순종하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계를 향해 에스더처럼, 다니엘과 요셉처럼 깨끗하게 승리하시길 바란다. 어른들은 후대에게 더러운 것들을 걸러주는 깔대기 역할을 해야겠다. 후대들은 계속 공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Heavenly Talent가 뭘지 찾아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직 언약과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후대되시길 바란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행복하게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이다.

(3) 고린도교회에는 성도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셔라. 세상에 소송한다는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하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있으면서도 이권과 주장 때문에 법적인 싸움을 한다. 부끄럽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이러한 흑암이 무너지기를 바란다. 천주교가 평화롭게 은혜롭게 말씀으로 해결하는 사람 없이 종교만 남았다. 모델 없이 싸움과 전쟁만 하니까 유럽에서는 천주교를 우습게 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빛을 발하면 영적으로 다 살릴 수 있다.

(4) 고린도 도시의 잘못된 음행의 문화가 교회 안까지 침투하고 번져 가는 문제가 있었다. 세상에 중독된 음란의 습관이 교회에서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도 박살내야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영육 간에 점과 티와 흠 없이 보전하라고 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음욕을 품고 탐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영육 간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더욱 거룩해지는 게 당연하다. 청교도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복을 받았다. 청교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란다. 마가 다락방교회도 거룩해지고 칭찬받아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다.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달라져야한다. 저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술, 담배 다 끊게 만들었다. 술, 담배, 마약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란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다. 고린도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최고의 제자들이 있었고 부흥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문제는 많아진다. 성공할수록 문제가 많다. 큰 조직일수록 문제가 많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사과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걸 문제를 줄이는 일이다.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사과해라. 일본에서는 발을 밟혀도 “스미마세”한다. 밟힐 곳에 내 발을 두어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한 게 미안하다는 말이다.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게 한 것도 잘못이다. 버티지 말고 잘못했다고 말하셔라.

(5) 또 고린도교회에 우상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다. 사실 먹어도 되지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새가족이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시험에 든 문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완전복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오해 살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 받지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복음의 사람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고린도전서의 핵심구절이자 전체 말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참 복음의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참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이다. 참 복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중심되시기를 바란다. 최근 왕의 왕, 미국에서 ‘King of kings’라는 영화가 유행하더라.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왕의 왕이다. 그래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 작품을 한국에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 작품으로 문을 여셨다.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살려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말씀과 완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와 현장과 땅끝까지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많은 사람을 치유할 절대사명이 있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총회, 한국교회가 부흥하도록 하시고 부흥할수록, 후대들이 응답을 받을수록 문제가 많아지지만 속지 않고 완전복음과 완전사랑으로 승리하여 쓰임받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